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령강림 대 축일
제36권 25호(다해) 2016년 5월 15일

[복사]



성령강림 대 축일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213) 222-3168
연령회 (장래지 연락처) : (310) 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신선한 정화의 바람

1독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언어의 통일로 모두가 일치.

2독서- 은총의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한 분이신 성령에게서 유래- 다양성 속의 일치.

복음-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며,

당신의 권한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심으로써 용서를 통한 일치.

일치를 화해시키는 분열은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일까?

- 이기심과 교만에서 유래. 그리고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

신선한 정화의 바람은 성령께로부터 불어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성령의 결실인 일치와 사랑이 싹트게 된다.

일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용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도 성령의 선물.

-오-

petrus3@hanmail.net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성소후원회(첫 목요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3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학생 복사단 (둘째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튼청년회 모임	오후 4:00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만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3째주 - • 요셉회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3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한국 교회의 역사

제2부 교회의 진로와 민족의 수난

2. 문호 개방기의 교회(1882~1911년)

2-1. 교회의 성장

개항기 교회는 조선교구의 제7대 교구장에 불량 주교가 임명된 1883년 이후 큰 발전을 보인다. 물론 그 뒤에도 정부에서는 선교사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고 교회의 토지 구입을 문제삼기도 하였다. 또한 개항 이후 서울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묵인되고 있었지만 일부 지방 관리들은 신자들을 계속해서 박해하였다. 그리하여 거제도 출신 윤봉문(尹鳳文)은 1888년 전주에서 순교하였다. 그리고 전라도 장성, 강원도 안협(安峽)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신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해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었다.

당시 교회는 얼마 안 가서 이루어질 신앙의 자유를 전망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리델 주교가 조선에 다시 입국하던 1877년 이후 신앙의 자유가 묵인된 1882년에 이르기까지 뮈텔(Mutel, 閔德孝, 1854~1933년) 등 6명의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흩어진 신자들을 모으고 교회 재건에 착수하였다. 그들은 박해가 이완되고 신앙의 자유가 묵인된 분위기를 활용하여 1882년 처음으로 서울에 본당을 창설했고 교세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으며, 성당 건립을 위해 토지를 대입해 나갔다(1883년). 한편 불량 주교의 뒤를 이어 1890년 교구장에 뮈텔 주교가 취임하였다. 개항기 교회 상황은 다음 <표 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신자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표 2> 개항기 조선 천주교회

연도	신자 수	전년대비 증가율(%)	본당수	프랑스 선교사	한국인 신부	신학생
1883	12,035	-	1	10	0	0
1885	14,039	3.03	2	11	0	6
1890	17,577	5.96	9	22	0	20
1895	25,998	5.12	18	36	0	32
1900	42,441	11.02	40	40	12	39
1905	64,070	5.81	45	44	11	20
1910	73,517	3.18	54	47	15	41

오늘의 성가

< 계속 >

	토요 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315	315	315
봉헌	254	254	264
성체	289	289	310
파견	317	317	317

토요 저녁 미사	(연)정명길
	(생)홍사동 베네딕도 & 이피아 아네스, 박효진 안젤라 김태홍 루카 & 박미진 유스티나, 김옥만 안드레아 & 김정연 클라라
주일 낮 미사	(연) 이정용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서성용 베드로,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현시영 요셉, 고준희 제임스, 이강영 바오로, 김봉길 바오로, 구연석 & 민휘식, 이용완 & 홍숙녀 마리아 & 이숙자 루피나 & 이인환 & 이두재 마리아 박창진, 이용식 베드로, 이덕철 루카
	(생)박정미 클라라, 이정희 소피아, 황윤제 베드로가정, 박광식 바오로 & 박정희마리아 가정, 이용훈 안드레아, 이규열 베드로, 스테판 프란치스코, 토동구역 1반원가정들, 정우석 루카 & 김서량 토마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postles) 2,1-11

화답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성령송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 주고, 매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 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제 2독서 코린도1서(1Corinthians) 12,3ㄷ-7.12-13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요한 (John) 20,19-23 <또는 14,15-16.23ㄴ-26>

영성제송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성령으로 변화하는 삶

우리가 묵은 모습을 떨치고 새롭게 변화해 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이들의 멋진 변모 이야기는 언제나 감동을 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 축일입니다.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읽어보고, 그 이후 사도들이 어떻게 변모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 오늘 요한 복음에서 묘사된 대로 ‘제자들은 유대인 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나약한 모습의 제자들이 훗날 매질 당하는 것도 두려워 않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거듭난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그 변모, 그 극적인 변화가 바로 오늘 성령 강림을 통해 이뤄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삶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룬 계기가 바로 성령을 받음으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영)은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라 하고, 신약의 희랍어에서는 ‘프네우마’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단어의 어원상의 뜻은 모두 ‘숨, 바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동서(東西)를 막론하고 고대 사회에서부터 ‘바람’은 신령스런 존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아마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면서도 무섭게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가진 바람을 동서양(東西洋)을 막론하고 옛사람들은 신적 존재로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거룩한 ‘바람’은 우리의 못난 묵은 모습을 날려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나약하고 이기적인 모습, 묵은 모습을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 버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새롭게 덧입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성령의 오심을 청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시대, 물질의 가치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물질로 행복을 재단하려는 물질주의, 배금주의 풍조를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 버리도록 성령을 청합시다. 말이 안 통하던 각기 다른 지방 출신 사람들이 성령의 언어로 통교가 되었듯이(제1독서) 직분과 활동은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심을(제2독서) 깨달아 상대방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오늘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해야 할 예수님임을 알아보도록 성령을 청합시다.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길은 인간적인 꾀는 결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 정순택 페드로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성인 말씀

성령께서는 우리 몸에 영혼이 머무르듯이, 교회 안에 영혼처럼 머무르십니다.

- 성 아우구스티노 -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범주 다니엘	정광미 프란체스카	손석 스테파노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김교복 레오	정인욱 아오스딩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김금자 테레사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PV 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레 테레사	남성철 베네딕토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이민상 요한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유민상 안토니오	이순자 비비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토서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오늘(5월15일)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성령 강림 대 축일'은 성령께서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강림 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서, 신약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 제13회 백삼위 한마당 가족 체육대회
 22일(주일) 11:00am~5:00pm

- 미사 시간변경 : 아침미사(오전 7시30분)와 낮미사(오전 10시) * 학생미사는 오전10시 미사와 통합
- 장소 : 축구장 잔디밭
- 대상 : 구역별 전 신자
- 청팀 : 토런스 동, 서, 남 구역
- 백팀 : 토런스 북, 하버 / 카슨, PV 구역
- 경기종목:피구,영덩이 뒤에 풍선 달고 꼬집어 터뜨리기, 축구, 종이비행기 멀리 날리기, 짝짓기, 어깨마주잡고 발등풍선 터뜨리기,신발 멀리 던지기,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장애물달리기
- 경품 : 한남마켓상품권, 스타벅스 상품권
- 참가상 : 끝까지 남아있는 가족당 쌀 1포씩
- 문의 : 박개순 도미니코 문화체육분과장 ☎(310)971-7043

◆ 교리반 예비자 모집

- 모집 및 전교 기간 : 4월3일 ~ 5월 22일
- 환영식 : 2016. 5월 29일 11시 미사 후 강당
- 교리 반 : 6월2일~12월 8일,매주 목요일 8:10 ~ 9:10PM
- 세례식 : 2016. 12.11 예정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310-796-6960

◆토요일(14일)에 고등부학생 12명이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축하합니다. 수고해 주신 선생님과 학부 모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월 요셉회 모임이 오늘 11시 미사후 강당에서 있습니다.

◆2016-2017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 신청 안내

- 수혜대상 : 12학년(졸업생) ~대학재학생(1~3학년)
- 자격 : 본당 등록신자 및 등록신자의 자녀로 교회 활동 및 봉사에 참여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 신청기간 : 5월31일까지 마감

◆2016년 백삼위 성당 '영성 피정'

- 주제: 신앙 성숙과 쉼을 위한 영성피정
- 강사: 강 요셉 신부 (구속주회)
- 대상: 전 신자
- 날짜: 6월2일(목)3일(금): 오후7시~10시30분
4일(토): 오후6시~10시30분,
(고해성사:오전10시~오후6시까지, 각자 원하는 시간에)
5일(주일):오후1시~6시
- 참가비 : \$30. 신청마감 : 5월22일

***9월 11일에 견진성사가 있습니다.**
 견진성사 대상자의 교리는 영성피정으로 합니다.
 견진을 원하시는 분은 영성피정을 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 주관 : 성령기도회
- 문의 : 강 아네스 (310)780-0369

◆주일학교 여름캠프 등록안내

- 날짜: 7월 8일 (금) ~ 7월 10일 (주일)
- 등록기간: 5월 22일 (주일)까지, 35명 선착순
- 참가비: \$60 (등록기간 후 \$85)

◆22일(다음주일)은 본당 체육대회, 29일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로 두 주간 주일학교,한국학교 수업 없습니다.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5월 15일 * 토서 1,3반: 북어국 (\$3)
* 주일학교 : 베이컨 핫덕 (9학년)
- 5월22일(주일) *체육대회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금동균 김기정 김여순 김원규 김원모 김원호 김운진 김정희 김종선 김주량 남성철 노혜숙 류현옥 박미경 박영식 박영희 박음진 방정복 송기철 양영자 오세원 오영섭 원건희 유희연 이상석 이은경 이일길 이종태 정규숙 조준제 주대중 최수복 최의수 최재은 합계:\$3,780	성전헌금	금동균 김기정 김원모 김운진 김주량 남성철 노혜숙 박음진 방정복 양영자 오세원 오영섭 원건희 유희연 이상석 이일길 이종태 정규숙 조준제 주대중 최재은 합계 : \$2,100
주일미사헌금 :\$2,566	감사헌금 : \$ 200(오영섭)	성물판매 이익금: \$245.75	

◆ 한국학교 공지사항입니다.

1. SAT II 한국어 시험 준비반 여름 특강
일시 : 6월18일 ~8월7일 (7월 2일 제외)
매주 토요일 오전 9:30~오후 12:30
신청마감 : 6월 12일 (주일)
2. 백삼위 한국학교 2016-17년도 1학기 등록 접수
- 6월 19일까지 접수시 20% 할인혜택
3. 한국학교 2학기말 시험 - 6월 5일
- 시상식 : 6월 19일 종업식 중.
4. 2015-16년도 한국학교 종업식
장소 : 강당
일시 : 6월 19일 오후 1시30분 ~ 3시
문의사항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남가주 소식

◆제 22차 남가주 선택주말(Choice Weekend)

- 대상 : 24~36세 사이의 남가주 가톨릭 미혼남녀
- 일시 : 8월 12일(금) ~14일(주일)오후
- 참가비 : \$300(반액은 본당지원 함)
- 신청마감 : 6월 25일
- 장소:드폴센터 420 DATE STREET MONTEBELLO, CA 90640
- 문의 : 신호진 구네군다(213) 503-7909

◆남가주 제 28차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강사 : 강요셉 신부(구속주회)
- 일시 : 2016.5.26(목) 오후 6:00~29일(주일)오후4시
- 참가비 : \$150 (숙박비 포함)
- 신청마감 : 5월 8일
- 장소:드폴센터 420 DATE STREET MONTEBELLO, CA 90640
- 문의 : 각본당 기도회장, 또는 한데레사(714) 345-4791

◆일상 삶 안에서의 영신 수련

- 지도 : 예수회 최준열 다미아노 수사
- 일시 : 2016.6.4~2017년 3월초,매주 토2시~5시pm
- 장소 : 성 아그네스 한인성당
- 문의 : 정 도로테아(818)321-9505
장 켈마 (224)305-4443

◆2016 FIAT 장학금 프로그램

- 신청자격 :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12th~ 대학, 대학원생),북미주거주 코리안 어메리칸 신학생
- GPA 3.0이상 ● 신청서 다운로드-www.fiat.org
- 신청마감-3/15 온라인접수시작~5/ 31/2016

◆2016 FIAT 봉사인정 프로그램

- 자격: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9th~11th)
- GPA 3.0이상 ● 신청서 다운로드-www.fiat.org
- 신청마감-~5/ 31/2016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3	윤비에 안나 560-7120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 크리스티나 490-9662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2	윤경옥 실비아 909-557-7490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3	박명순 안나 968-7600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3	김유미 사비나 850-2822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토런스 북 정병옥 율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중 다니엘	1 /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P. V. 남정희 베네딕다 384-3289	1	남해나 베네딕다 384-3289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4	이귀란 아녜스 617-3568	체육대회로 대체 5/22(주일)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사목회의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	--

가정의 날을 생각한다

오늘은 가정의 날입니다. 아내의 제자들은 아내가 퇴직한 지 벌써 17년이 지났는데도 이날이 되면 꽃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 중에도 특히 대녀들이 많습니다.

아내는 선생님이로 재직 중일 때 ‘꾸르실료’ 교육에 가서 3박 4일 동안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일선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전교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신자가 아니었던 제자들까지 모두 천주교 신자 가정을 이루어 집안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가끔 내게 주례를 서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때마다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주례를 서는 대신 그대들은 신자가 돼야 한다’는 약속입니다. 벌써 여러 쌍이 그 약속을 지켜 신자가 되었고, 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무척 보람을 느끼고,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내는 아침 6시10분이면 출근하고, 삼부자만 집에 있다가 8시30분에 각자 등교와 출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에게 들은 바로는 ‘그때 아버지가 무얼 하시나 하고 살펴봤더니 책을 읽고 계셔서 이 시간엔 책을 읽는 시간인가 보다’ 하고 자기들도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또 저녁 9시가 되면 우리 집안 식구 모두 모여 저녁기도를 바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심어주었던 셈입니다. 아이들의 신앙은 가정에서 부모의 표양(表樣)으로 키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미사가 있는 토요일이면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도 으레 집 대신 곧바로 성당으로 갔습니다. 이런 것이 고등부 주일 학교까지 이어져서 지금도 주일학교 친구들이 많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는 가족 중 유일하게 신자가 아니었던 할아버지를 전교하여 ‘베드로’라는 본명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신자 한 명 없던 집안에 22명 모두 신자가 되었고, 큰아들이 사제가 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자라는 아이들의 인격형성에 가장 좋은 가족구성원은 3대가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랬고, 우리아이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세례와 혼인성사를 집전해 주신 故 오기전 신부님께서서는 두 아들에게도 세례를 주셨

고, 그들이 형제 복사가 됨을 축복해 주셨으며, 두 아들 모두 사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성가정의 주보 성인이신 요셉 그리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김현 요셉 | 전 시그니스 회장

[교리상식]

견진성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 견진성사는 세례, 성체성사와 더불어 가톨릭 교회의 입교 성사에 속합니다. 견진은 세례의 완성과 확인으로 세례와 밀접한 연관을 이루기에 견진성사는 꼭 받아야 합니다. 견진성사를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교의 입교가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견진성사를 통해 받은 신앙의 성숙은 대부모의 자격 요건이며, 이제 성실하고 꾸준한 기도생활로써 대부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PD 하느님, DJ 예수님 / 바오로딸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내 마음이 메마르고 외롭고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 때문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남 때문이 아니라 내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이해인 수녀,시인-

[웃고 갑니다]

어느 날, 성당마당 성모상 앞에서 묵주기도를 끝낸 복사단의 다니엘군이 묵주를 손에 감아 빙빙 돌리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다. 마침 본당 신부가 이 광경을 보고 그를 불렀다. “다니엘, 그게 뭐니? 성물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니, 묵주 한 알 한 알에 조그만 천사가 앉아 있는 걸 모른단 말이냐? 그래서야 쓰겠니?”

다니엘은 신부님의 나무람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본당신부가 사제관으로 사라지자 마자 다시 묵주를 손가락에 걸어 조금 전보다 더 빨리 빙빙 돌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다.

“꼬마 천사님들! 나가떨어지지 않으시려면 꼭 붙잡고 계세요. 꼭이요!”

예수님꿈에 시달린 빌라도의 아내

빌라도의 아내는 신약성경에 잠깐 나오지만,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 관한 재판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있기 전날 밤 그녀는 밤새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꿈의 내용이 마치 현실처럼 너무 생생하여 사람을 시켜 남편 빌라도에게 전갈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무엇이냐 말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오 27,11-19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슬려 예수님을 없애 버리자고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문초했지만 이렇다할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인물을 무죄로 방면하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을 직감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남편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무죄 풀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죄에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무엇이냐 말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오 27,20-26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총독 판저로 끌고 갔지만,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판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총독 판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지요?”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였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 18,28-38

빌라도는 결국 자신의 양심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치적인 재판은 자신의 양심만을 따라서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을 빌라도의 아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빌라도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와 자연히 이스라엘 지역 상황을 알게 되었고 예언자라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무엇보다 자신의 남편이 쓸데없이 구설에 휘말려서 정치적으로 타격받지 않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빌라도의 아내는 무척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유대교의 개종자로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그녀를 성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가 사람을 보내어, “당신은 그 ()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밤 ()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을 당했어요.” 하고 말하였다.(마태 27,19)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가 무엇이요?” 빌라도는 이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도 찾지 못하겠소.”(요한 18,38)

어떤 착각



내 앞을 지날 때마다 우러러 바라보네.
그래, 내 향을 맡고 누구라도 그냥 지나칠 순 없지.
볼 적마다 절도 하네. 그래 내가 좀 예쁜긴 좀 예쁘지.
꽃들도 밝히네, 내가 꽃들의 여왕이라는 걸 잘 아는 게야.
찬송도 하네. 드디어 내가 이들의 여왕까지 됐나봐.
그러기엔 자리가 너무 좁아.
내 옆의 이 차가운 석상만 없으면 딱 좋겠네.

-이영 아네스-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학교 홍보국장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HANUNI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가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1-855-388-4141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묘지매매
묘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스트모더니즘 준비
*주말 ROBOTICS & LEGO 수업
www.kimsmusicschool.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납골당
Jean Kim
☎ (213)842-8366
JJKim@LACatholicCemeteries.org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겸사 겸*마리아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 합니다
☎ 213-385-4646(imin)
3435 Wilshire Bl. #1110 LA (에퀴터빌)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천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 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점마-

한국 장 의 사

LA(FD74), 늘워(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영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24 / OS996880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	--	--

서박사 수학 과외지도

K-12, SAT ACT 책임지도
서울대, 아이오와 대학원, 교직경력
☎310-627-7204 서혜정 마르타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키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불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StateFarm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한스전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 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열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